

음악문화와 콘텐츠

여행 중 찍은 사진을 편집, 배경음악을 넣어 CD로 보관해둔다. 배경음악이 사진 속의 추억을 더욱 새롭게 해준다. 마음 속 등불 같은 음악은 여인에게 고백할 때나 분위기를 돋울 때 마음속 징검다리와 같다.

글 안명옥 시인

아름답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자란 화원의 꽃은 그렇지 못한 화원의 꽃보다 더 향기가 짙고 색이 곱다. 축산농가에서도 좋은 음악을 들려준 소가 젖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을 타인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지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재즈, 영화음악을 가끔 선물 받을 때가 있다. 평소 음악을 즐기지 않는 나는 그 덕택에 음악을 시나브로 알아가는 행복을 맛본다.

‘음악은 사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 역시도 한때는 음악을 사치라고 여겼다. 그러나 아름다운 무지개를 한번 경험한 후에는 비온 뒤의 하늘을 자꾸 쳐다보게 되듯이 가상의 시공간을 넘나들게 하는 음악을 이제는 운전할 때도 걸을 때도 항상 옆에 끼고 있다. 가끔 아름다운 선율을 만나면 이런 음악은 대체 누가 작곡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아마도 하늘의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닐까. 천상의 소

리를 작곡가들에게 영감이라는 통모로 받아적게 하는 게 아닐까.

음악에 빠지는 이유

음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친구들과 어울려 부르는 노래, 야영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부르는 흥겨운 노래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

음악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음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밴드나 재즈를 접목한 찬송가를 부른다. 각 대학에서는 창작가요제나 창작동요대회가 성황리에 열린다.

우리가 늘 숨을 쉬며 끊임없이 산소를 들이마시듯 혹자는 음악을 삶의 숨결과 같다고 했다.

또한 음악은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다. 시낭송을 할 때도 배경 음악을 깔면 훨씬

돋보인다.

음악과 매상과의 관계

얼마 전 새로 문을 연 동네 대형슈퍼에는 연일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런데 그곳의 오픈을 알린 것은 음악이었다. 크게 틀어 놓은 음악에 맞춰 아가씨 둘이서 춤을 추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가만히 살펴보니 특징이 있다. 손님이 많을 때는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틀다가도, 다시 손님들이 빠져나가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 놓는다.

그 슈퍼 직원은 음악이 매상과 직결된다고 귀띔해준다. 손님이 많을 때는 매장이 혼잡하니 빨리 쇼핑하고 나가고 다시 새 손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음악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또 음악이 경쾌하면 구매욕을 더욱 자극한다고 한다. 반면 조용한 음악이 흐르면 여유 있게 매장을 돌아보며 천천히, 그리고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과 교육

지루한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음악이다. 공원을 혼자 거닐다 보면 때론 지루하다. 그럴 때 음악과 함께 하면 재밌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헬스클럽에도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할 때도 음악이 필요하다. 단지 운동만 하면 지루해진다. 음악이 감초처럼 그 지루함을 이겨내게 한다. 중국어도 노래를 통해 가르칠 때 실력이 더 향상되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준다. 생의 지루함과 일의 지루함을 덜고 능력을 오르게 하는 것은 음악의 힘이다.

우리의 태초 음악

우리는 어떻게 음악을 알게 되었을까. 아마도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음감을 익혔으리라. 아기집이 커져 갈수록 엄마의 심장소리와 가까워지면서 심장소리는 더 크게 들렸으리라. 엄마의 목소리도 아기에게는 최초의 음악이 아니었을까. 힘들고 지친 날에는 짜증나는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행복한 날에는 다정한 목소리도 들려주었으리라. 아기에게는 엄마의 목소리와 심장이 최초의 음악이었으리라.

엄마 뱃속에서 나온 후에도 엄마의 목소리나 심장소리를 들려주면 울다가도 멈추는 것은 이미 뱃속에서 음악과 친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교음악이 나오고 태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아기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음악의 종류는 엄마의 환경과 마음에 달려있다. 태교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은 아기가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엄마 뱃속에 대고 책을 읽거나 말을 건넨다. 아마도 그런 가정은 아기들에게 더 풍요로운 음감을 심어 주는 게 아닐까.

자연의 음악

서해 제부도 부근인 남양이 필자의 고

향이다. 반농반어촌인 마을에서 자란 어린 시절 자연의 소리가 음악이었다. 엄동설한에 밤새 뭍서리치던 문풍지소리며 뒤란 대숲바람소리, 누렁이 경경 울음소리, 발정 난 고양이 울음소리, 처마 밑에 떨어지는 낙숫물소리, 눈이 장독대에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 눈을 저벽저벽 밟고 된장 뜨러 가는 어머니의 발자국소리, 생솔가지 부러뜨려 아침을 짓는 아궁이 소리, 장작 패는 아버지의 도끼질소리, 쇠죽 썰 여물을 써는 작두소리 등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음악들이었다.



광고에 물 흐르는 소리나 혹은 노동이나 자연의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자연 속 음악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동요

요즘 아이들은 동요를 잘 부르지 않는다. 세상도, 아이들도 변했는데 동요는 그대로 바뀌지 않았다거나 너무 맑고 맑은 동요만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 가요의 늪에 점점 빠져가는 아이들에게 다시 동요를 부르게 하려면 요즘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편곡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음악과 영화

음악은 아름다운 선이다.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선하다. 그러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설득력 때문에 엉뚱한 선동성을 띄기도 한다.

베트남 전쟁의 광기를 다룬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에 삽입되었던 바그너의 음악은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찬양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스피버그 감독의 <선들러 리스트>에서는 바흐의 <영국모음곡 2번>의 전주곡을 두고 독일병사들이 “바흐의 음악인가? “아니야. 모차르트 일거야.”라며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바흐가 누구던가. 독일출신의 음악가이면서 오늘의 클래식 음악을 있게 한 ‘음악의 아버지’가 아니던가. 스피버그 감독은 이 장면 속에서 독일적인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내세웠던 나치의 허구성을 비판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영화와 음악이 만나면 영화가 빛나고 메시지도 전달한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정결한 여신이여>나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들은 영화의 매력을 발산하고 메시지 또한 인상적으로 전하고 있다.

음악회를 여는 기업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사옥 안팎에서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업들의 이미지도 훨씬 좋아지고 있다. 대성그룹은 인사동 본사 마당에서 주말과 공휴일 오후에 클래식음악회와 음악 감상 등 공연을 열고, 한화그룹은 본사 사옥 주변에서 수·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음악회를 개최한다. 무역협회와 코엑스도 만남과 나눔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를 시작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이 불우이웃돕기 등 한정된 분야에 그쳤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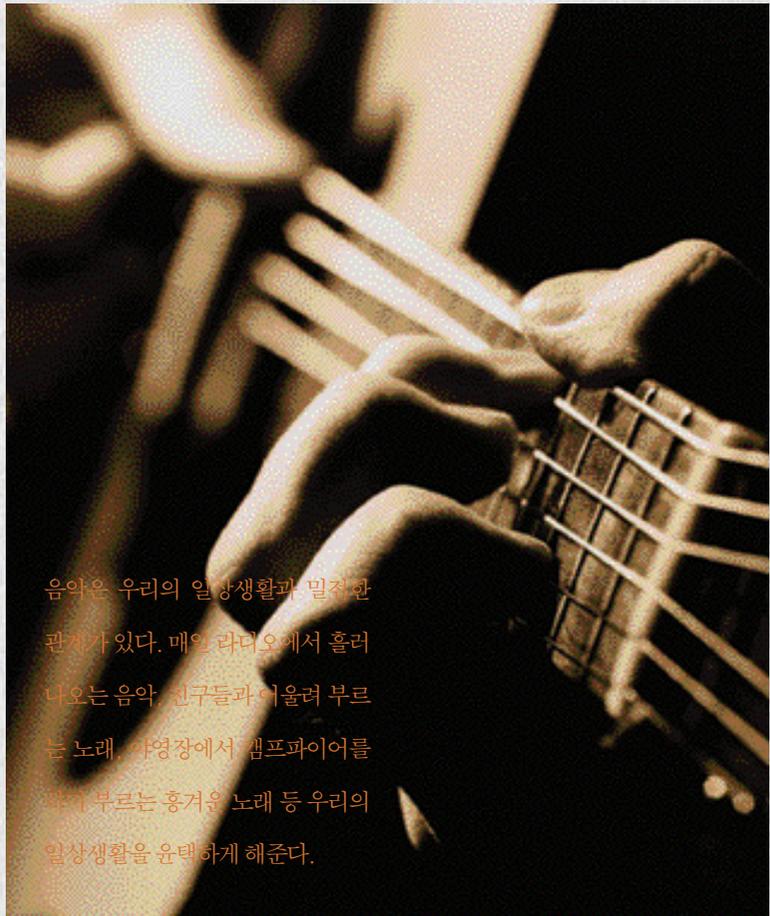
호수 공원의 음악분수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있는 여름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호수공원으로 나선다. 일요일이면 연인들끼리 혹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호수공원 여기저기서 걸거나 잔디밭 나무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밤 8시가 되면 호수공원은 사람들로 바다를 이룬다. 음악분수는 다양한 노래들을 들려주며 춤을 춘다. 분수의 물 색깔이 초록이다가 보랏빛 물줄기로 밤하늘을 수놓고, 다시 은백색의 물결을 이루며 신비롭고 환상적인 밤을 연출한다. 음악의 강약이나 빠르기에 따라 분수는 용트림을 하고 용암을 쏟아내듯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다.

라페스타의 거리

일산 라페스타의 상권이 살아나는데 기여한 것은 음악제나 춤 등과 같은 콘텐츠들이었다. 일요일마다 라페스타에는 통기타를 짊어온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들려준다. 거리에 나온 이들이 저마다 빙 둘러 앉아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하나의 상품이요, 라페스타를 빛나게 하는 콘텐츠다. 상점에서 틀어 놓은 음악과 달리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감과 연주자의 열정이 함께 전달되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과 발길을 잡는다.

작은 모금함에 성의를 표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우리가 오디오로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을 직접 콘서트장에 가서 감상하는 이유가 바로 청각뿐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주자들의 표정과 연주에 흠뻑 빠져 취하는 제스처나 분위기도 듣는 즐거움 못지않게 매



음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일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 친구들과 어울려 부르는 노래, 야영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부르는 흥겨운 노래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

력적이다.

주부 클래식 콘서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모닝콘서트가 늘어나고 있다. 저녁시간대의 외출이나 공연관람은 주부들에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도 출근한 오전 10시 무렵이 주부들에게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다. 클래식을 잘 모르는 주부들에게 해설을 곁들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11시 클래식 콘서트는 성공적인 콘텐츠다. 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여유 있게 도착해 커피도 마시고 팸플릿도 읽어 보는 주부들의 얼굴이 환하다. 클래식 음악을 즐긴다는

자부심까지 느껴지면서 마음은 엄청 부자가 된다. '엄마'와 '아내' 역할을 잠시 잊어버리고 음악에 흠뻑 빠져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는 처음부터 주부층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주부층의 문화욕구를 갈망하는 마음을 읽은 성공적인 음악 콘텐츠가 된 것이다. '11시 콘서트'가 열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엔 옛 여고 동창생들과 같이 음악의 향기에 젖다보면 중년의 위기는 건히고 새로운 취미를 얻는 기회가 된다. 해설을 곁들인 저렴한 모닝 콘서트가 전국으로 퍼져 더 많은 주부들이 고전음악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